

보도 일시	2022. 12. 5.(월) 09:00	배포 일시	2022. 12. 5.(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이안진 (044-203-2522)

## 청년세대 현장 목소리로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 문화콘텐츠체육관광 현장의 청년 21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 가수 은가은 씨,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임다연 씨, 수어 유튜브 창작자 '유순생' 등 참여

2030 청년세대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만들 새 문화정책의 주체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030 자문단'은 12월 5일(월)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1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2030 자문단은'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의 발굴과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개 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청년 단원들은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그 경험과 이력이 매우 다채롭다.

### 현실의 시련을 극복하고 도전해 온 청년 문화예술인

먼저 시련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선발됐다. ▲ 유명 방송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대중가수 김지은 씨(예명 은가은), ▲ 국내외에서 팝페라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 황호정 씨,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로서 국악 아카펠라그룹 '토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백현호 씨, ▲ 연극·뮤지컬 배우 김윤후 씨, ▲ 수영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다연 씨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에 생동감 있는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생각과 도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 기업인

독창성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들도 함께한다. ▲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인 (주)작가컴퍼니 최조은 대표, ▲ 이야기 지식재산(IP) 전문 개발사이자 콘텐츠 투자사인 (주)21스튜디오 공동창업자 허규범 대표, ▲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기업 빅텐트에이앤엠 김영민 대표 등이다. 이들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 혁신 등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문단에 참여한다.

### 장애,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청년들

장애를 넘어 문화를 누리는 청년들의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여한다. ▲ 신체적 장애를 딛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놀이 활동(액티비티) 여행사 ‘무빙트립’을 창업한 신현오 대표, ▲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로서 수어를 가르치는 유튜브 창작자 유슬기 씨(유손생), ▲ 시각장애인용 체험 전시 기획제작사 (주)비추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진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에 문화로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들

이 밖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관광 분야 신생기업 창업자, 사회적 기업 청년 경영인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2030 자문단’은 향후 2년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자문회의와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청년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개선하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 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 단원인 황호정 씨가 속해있는 팝페라 그룹 포엣(POET)의 공연으로 시작하는 발대식에서는 박보균 장관이 지난 11월 22일(화)에 첫 출근한 청년보좌역이자 자문단 단장인 최수지 씨에게 임명장을, 단원들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어 박보균 장관과 자문단이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청년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에 참여한 박예원 씨는 “예술행정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술 현장에 절실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고, 신현오 씨는 “무장애 관광 여행사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가진 청년들이 즐기며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 2030 자문단’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문체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물론 분야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한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정책 논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체부 2030 자문단’ 외에도 ‘특별 초청 청년위원회’도 구성해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체부 2030 자문단’ 명단

**붙임**

**‘문체부 2030 자문단’ 명단(분과별 가나다순)**

분과	성명	주요경력
문화예술 (7)	<p>강수경 (89년생)</p> 	<p>현) Seoul Artistic Orchestra (청년예술단체) 대표 &amp; 음악감독, (주) 서울아티스틱 (소셜벤처) 대표, Salzburg Global Seminar 문화예술 부문 Fellow -문화예술분야에서 청년(여성)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바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직접 청년예술단체를 창단해 슬리퍼음악회, 웰컴Baby콘서트, 창작곡 워크샵 등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며 활동해오고 있음</p>
	<p>김윤후 (87년생)</p> 	<p>-대학로 및 공연계 배우(10-)로 활동중, 연극 '택시안에서 '뮤지컬 '작업의 정식' 연극 '연애하기좋은 날'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등 다수 공연 -코로나팬데믹시대에 공연예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 조명</p>
	<p>박예원 (95년생)</p> 	<p>-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직 -국악전공자로 광주국악방송 PD 역임,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강사 및 ACC 대표 브랜드 전통예술공연 대동시리즈 총괄프로듀서(18~21) 외 다수 공연 기획·참여 등</p>
	<p>백현호 (87년생)</p> 	<p>-판소리를 기반으로 공연, 방송, 강연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악인으로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판소리부문 장원을 하였고, -KBS 인간극장, 아침마당, 노래가 좋아, SBS 스타킹에 출연, 농심 40주년 기념 TV 광고, 라이나생명 TV 광고에도 출연.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 활동 중</p>
	<p>윤이랑 (85년생)</p> 	<p>-KCDF 공예디자인 전시공모에 선발되는 등 공예 분야에서 신진작가로 부상 중 -미술박사학위 취득 후 금속공예작가, 대학강사,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p>
	<p>이해정 (89년생)</p> 	<p>-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공예문화상품 선정, 스페인 마라치국제도자 비엔날레(BICMA), 2nd prize 수상 등 차세대 공예(도자기) 작가 -해정세라믹스튜디오(18-)를 운영중에 있으며, 공예트렌드페어에 지속적 초청 활동중</p>
	<p>황호정 (86년생)</p> 	<p>-일본 최초의 한류 팝페라그룹 'POET' 리더로 활동 -오랜기간 활동해온 만큼 열린음악회, 불후의명곡 등 방송과 일본에서 100회 이상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태국 등 동남아 진출</p>
콘텐츠 (8)	<p>김영민 (84년생)</p> 	<p>-17년 가까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게임, 음악 콘텐츠)에 종사, 국내외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 빅텐트에이앤엠 대표(22.10-)</p>
	<p>김원진 (92년생)</p> 	<p>-유니버설디자인 체험전시 전문 사회적 기업(18-현) (주)비추다 설립 및 대표 -시각장애인 대상 '손끝으로 보는 유물 촉각전' 등 개최,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경남지역 중심으로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진행 중</p>
	<p>김지은 (은가은) (87년생)</p> 	<p>-중학교때 성악을 배웠고 조두남 성악콩쿨 대상 수상, 연습생 8년, 무명시절 8년을 지내고 '미스트롯'(20년) 최종 7위로 대중가수로 활동 중</p>

분과	성명	주요경력
	유슬기 (96년생) 	-농인부모의 자녀(CODA)로 수어를 가르친다는 의미의 “유손생”유튜버 -코다코리아 활동 중
	이성균 (90년생) 	-현)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 -다수의 국제영화제 (외신)홍보팀, 울산문화재단 축제추진단, 아시아콘텐츠 필름마켓 등 영상정책기관 및 영상콘텐츠산업 분야 근무. 서울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문화매개 영역에 대한 연구원으로 참여.
	조희선 (96년생) 	-현)강원대 영상문화학 박사과정(게임콘텐츠)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핵의 규제, 로봇과의 공감 등을 주제로 학술발표
	최조은 (86년생) 	-웹 콘텐츠(웹소설/웹툰) 출판사 (주)작가컴퍼니 대표 -웹소설 작가
	허규범 (88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주)쇼박스 해외사업팀을 거쳐 유니온투자파트너스(주)에서 문화 콘텐츠 전문 투자심사역으로 5년 간 재직하며 콘텐츠 분야 전반에 투자 집행 - 2019년 스토리IP 전문 개발사 (주)21스튜디오를 창업하여 현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웹소설 등의 콘텐츠 직접 기획 및 제작 중
	김경호 (83년생) 	-대구,경북중심으로 활동하는 관광콘텐츠 기획인으로 대구중구근대골목 투어버스 물총축제, 김광석버스 등 콘텐츠기획·운영. -관광,여행에 관심이 많은 청년 및 액티브시니어와 함께 여행업에 대한 창업과정운영(여행자학과) 및 주민주도형 상품을 만들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여행상품 기획 및 운영(칠곡여행)
	박창영 (93년생) 	- 온라인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 청년 창업
	배지영 (90년생)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 선수로 2018평창올림픽및패럴림픽대회 스포츠 매니저로 활약하고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에서도 스포츠매니저로 근무 -베이징올림픽 KBS 해설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국제연맹(FIS) 국제기술대표(ID)로 활동중이며,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살피미(인권감시관)로 활동중임
관광체육 (6)	신현오 (92년생) 	-배리어프리 여행사 ‘무빙트립’ 대표이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 -2019 대한민국인재상,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가상 -문체부 지정 성장관광벤처
	심요섭 (92년생) 	-현)대한관광대학학생회의 상임고문 및 초대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자문위원(18-20기)으로 활동, ‘08년부터 ‘세상은 넓다(KBS)에 직접 촬영영상 제공 등 관광분야 관심 높음
	임다연 (92년생) 	-수영 국가대표 출신으로 극동대학교 조교수로 후학양성 -아레나 전속모델이자, 네이버 공식 스토리텔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